

20
19

두산연강예술상



20
19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 초대회장 연강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두산연강예술상,
어느새 열 번째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초대회장님의 뜻을 이어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분들께

이 상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을 기점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작품 세계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산의 오랜 철학이 담긴 두산연강예술상을

수상하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박흥현

제정의 뜻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써온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
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두산의 의지와 생각을 담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자격

공연·미술 부문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
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 만 40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가

선정과정

심사위원 선정 → 후보 추천 및 심사 →
수상자 확정

상금 및 부상

공연부문

수상자 1명
상금 3천만 원
신작 공연 제작비 지원(2021년 하반기)
아티스트 멘토링 제공
작품 워크숍, 세미나 지원

미술부문

수상자 1명
상금 3천만 원
두산갤러리 서울/뉴욕 전시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
(2021년 상반기, 스튜디오/거주 공간/항공권/
생활비 제공)
아티스트 프로모션 및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지원

2019 제10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공연부문 **윤미현**

심사위원 김미도 (연극평론가)

윤한솔 (연출가)

이경미 (연극평론가)



윤미현

작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수료

수상

2019 제55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텍사스고모〉

2017 제4회 ASAC 희곡공모 대상 〈텍사스고모〉

2016 제37회 서울연극제 희곡상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대통령상 〈철수의 난〉

경력

2019 창작오페라 〈텃밭킬러〉, 〈검은 리코더〉 작

2018 연극 〈텍사스고모〉 작

2017 연극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화〉,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메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작

2016 연극 〈괘짜〉, 〈장판〉, 〈철수의 난〉 작

2014 연극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팬티입은 소년〉
〈젊은 후시딘 - 어 러부 스토리〉, 〈평상〉 작

2012 연극 〈텃밭킬러〉, 〈우리 면회 좀 할까요?〉 작



2014 〈팬티입은 소년〉



2016 〈장판〉



2018 〈텍사스고모〉



2019 〈텃밭킬러〉

공연부문 심사평

작가 윤미현의 희곡 속 인물들은 한결같이 참 영성하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사건을 수습하지 않다가, 밥을 맛있게 먹고, 술주정을 하고, 밤이 되면 쿵쿨 잠을 잔다. 엄청 슬프고 아픈 심각한 상황인데 깔깔댄다. 반성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월아 흘러라 하면서 산다. 중년의 아들은 허구한 날 TV 앞에 웅크리고 막장 드라마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 말한다. “아, 현실이 더 막장이야.”, “10년 동안 똥줄 빠지게 일했는데 저런 대우 받으면 나는 확 회사에 불을 질러버릴 거야.” 아들의 어머니인 할머니는 아들에게 평생 자신을 바치며 살았으니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아들이 돈이 없다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자, 할머니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광주리에 담아내다 판다. 식용유도 조금 덜어내다 팔고, 커피믹스, 프리마도 내다 판다. 결국에는 이사업체를 불러 집을 통째로 넘겨버리고는 광주리를 이고 나가버린다(〈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2017)). 파자마 아저씨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가장이다. 망명이의 형은 조만간 외국으로 떠날 거라며 트렁크를 들고 다니지만, 집 밖을 땀돌 뿐 떠나지 않는다. 망명이와 계모인 엄마는 주야장천 피가 나도록 서로의 때를 밀어댄다. 먹을 것이 없는 꼬맹이 엄마, 아빠는 살 집을 찾다가 1970년대 지어진 시범아파트로 간다. 집주인인 노인 부부는 아파트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 집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면 안전모를 쓰고 손에 망치를 들고 집과 장독들을 깨부수고 있다(〈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메론씨를 준다고 했어요〉(2017)). 한결 같이 납득이 안 되는 인물에, 그 이상으로 걸맞지 않은 참 기이한 상황이다.

영성한 인물과 그들이 사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작가 윤미현의 글쓰기도 참 험겁다. 인물들이 자기의 내면을 풀어 보여주기에 턱 없이 짧은 대사들을 툭툭 던져 놓는다. 그것도 모자라 무수한 사이, 섬표들로 벌려놓는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명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를 메우고 다듬겠다는 생각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둔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작가 윤미현은 자신의 희곡에서 눈을 떼고 연극 무대를 쳐다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라는 듯, 마치 다음을 부탁하겠다는 듯 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는 오랫동안 한국연극 안에서 희곡작가, 희곡에 대해 다져져 왔던 생각들을 무너뜨린다. 세상은 물론이고 연극무대에 대해 결국은

정제된 모범 답지가 되기를 바랐던 예의 그 희곡, 희곡작가와와는 꽤나 거리가 있다. 그래서 그의 희곡은 낯설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또 새롭다.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의 희곡은 그 희곡을 안고 무대에 설 사람들과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객석의 관객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언어에 연출의 언어, 배우의 언어, 그리고 관객의 언어가 다가가 충돌하고 얹힐 수 있는 공간을 희곡 안에 만들어놓는다. 그의 영성함, 험거움, 도처의 빈 틈들은 이를 위해 치밀하게 의도된 것이다. 이로부터 독특한 파동이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그의 희곡을 안고 무대에 설 사람들은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아니 채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그 상태로 무대 위에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희곡은 지극히 연극적인 희곡이다.

그런 그의 희곡은 잘 만든 답안지가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를 더 채워 넣어야 하는 서술지로 다가온다. 그 틈을 채울 납득 가능한 답을 찾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한다.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하고 분노스러운데, 그 현실을 벗어난 외부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빼앗겼거나 스스로 포기해버린 우리 모습을 말이다. 작가 윤미현 식의 리얼리즘이다.

작가 윤미현은 그렇게 파동이 느껴지지 않는 이미지 위주의 연극과 현란한 연극성으로 무장한 작품들이 늘어나는 한국연극 안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플롯에, 대사에 힘을 불어넣는다. 희곡 안에 있으면서도 희곡을 벗어나는 전개, 재현적 글쓰기와 탈재현적 글쓰기 사이의 줄타기를 통해 양보 없이 동시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포착해낸다. 그리고 그 희곡으로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아낸다. 윤미현의 스타일이 아직 무대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그 희곡이 발생시키는 파동에 응대할 연출과 배우들이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 귀한 젊은 작가가 더 높이, 더 멀리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사위원 모두 별 주저함 없이 윤미현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심사위원 김미도 윤한솔 이경미

2019 제10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미술부문 김주원

심사위원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해주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안소현 (아트스페이스 풀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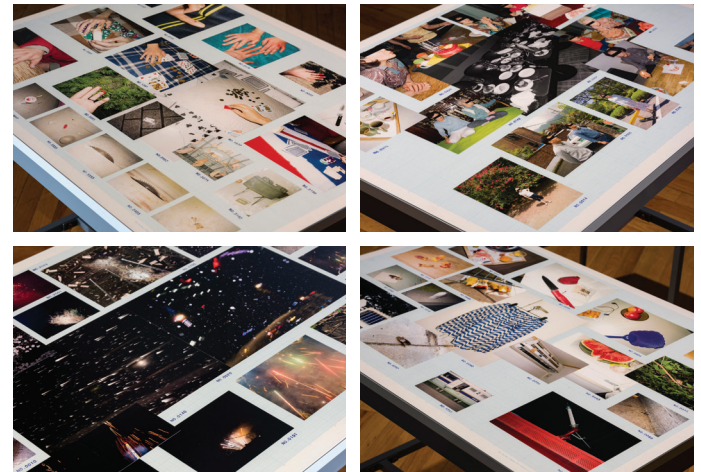


김주원

2014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조형예술과 졸업, 서울, 한국
2008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졸업, 서울, 한국

전시

- 2019 **색맹의 섬**,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 2018 **서울사진축제 특별전**, 플랫폼 창동61, 서울, 한국 (압축과 팽창)
서울사진축제 특별전, 세마창고, 서울, 한국
유령팔,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압축과 팽창)
- 2017 **HONEY and TIP**, 아카이브 봄, 서울, 한국 (압축과 팽창)
- 2016-17 **지금여기, 밝은 세계**, 공간 지금여기, 서울, 한국
- 2016 **압축과 팽창**, 공간 지금여기, 서울, 한국 (압축과 팽창)
- 2015 **밝은 세계**, Gallery 175, 서울, 한국
- 2014 **HOME/WORK**, 시청각, 서울, 한국



과거가 과거를 부르는 밤(시퀀스 테이블)

2019, 테이블, 방안지, 사진 출력물, 아크릴 패널, 843x596x750mm

미술부문 심사평

올해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의 후보자들은 특정한 경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른 매체와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젊은 작가들로 구성되었다. 물론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이 다수 눈에 띄었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작가들보다는 자신이 사용하는 매체와 주제에 내재한 질문들에서부터 출발하여 한 단계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려는 작가들이 많아 한동안 미술계가 휩싸였던 ‘겉보기의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나 들뜸에서 조금은 벗어난 느낌을 준 것이 반가웠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해서 올해 심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심사위원들은 후보 작가들의 역량이나 도달한 질문의 깊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제 하에, 두산연강예술상이 주목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 주로 논의를 했다. 일단 이 상이 자신의 언어를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든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의 다양한 실험들 중에서 자신이 천착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갤러리 서울과 뉴욕에서의 개인전과 뉴욕 레지던시 기간을 통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의 고민들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또한 흔한 말이지만 잠재력은 여전히 이 상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김주원은 그동안 다양한 콜렉티브 활동을 병행해왔지만 특히 최근작 <과거가 과거를 부르는 밤>에서 10년 넘게 숨쉬듯 기록해온 사진, 텍스트, 사운드 때로는 그들의 부재를 직조함으로써 보기 드문 긴 호흡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그것은 무작정 붙들고 있었다는 ‘노고’에 대한 치하가 아니라, 단숨에 스펙터클을 얻으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체온보다 아주 살짝 높은 듯한 온도의 스냅 성격 사진들에 숨은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리는 힘에 대한 평가였다. 김주원은 평범하게 ‘찍힌’ 듯한 사진들을 이리저리 조합하고 재배치하고 거기에 시간의 경과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는 음악과 섬세한 이미지의 교체,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흔한 수사 하나 없이 과거로 단숨에 뚫고 들어가게 하는 담백하여 막강한 텍스트를 결합하였다. 김주원의 작업을 보면 일단 그 중독성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놀라움이 지나고 나면 스냅이 기존 사진 언어의 부정에 그치거나 ‘힙(hip)함’을 위계로 내세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반복에서 힘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큐멘터리적 현실과 개인의 사적 기억을 뒤섞어 소환하는 것을 보며 사진의 고전적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는 좀 낡은 의견 같긴 하지만, 노출중에 걸린 듯 입고 벗는 비즈니스 미술들 틈에서 작가에게 근육처럼 체화된 작업방식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이번 두산연강예술상의 수상을 계기로 현실을 기록하는 작가의 시선이 더 다채로워지길 바라며 새로운 환경을 만나 평범한 이미지들의 또 다른 폭발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심사위원 김성원 김해주 안소현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2010년-2018년)

공연부문

- | | | | |
|------|---|---------------|---|
| 2018 |  | 김정
연출가 | 〈처의 감각〉, 〈손님들〉, 〈임영준햄릿〉
〈순진한햄릿〉, 〈광장의 왕〉, 〈꿈〉 |
| 2017 |  | 이연주
작가/연출가 | 〈인정투쟁: 예술가 편〉, 〈오마르〉
〈아무도 아닌〉, 〈전화벨이 울린다〉
〈이반검열〉, 〈삼풍백화점〉 |
| 2016 |  | 구자혜
작가/연출가 | 〈타즈매니아 타이거〉, 〈commercial, definitely: 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
〈디스 디스토피아〉, 〈모래의 여자〉 |
| 2015 |  | 이자람
국악창작자 | 〈노인과 바다〉, 〈이방인의 노래〉
〈추물/살인〉, 〈억척가〉, 〈사천가〉 |
| 2014 |  | 이경성
연출가 | 〈러브 스토리〉, 〈워킹 홀리데이〉
〈비포 애프터〉, 〈서울연습 - 모델 하우스〉
〈남산 도큐멘타: 연극의 연습 - 극장편〉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 |
| 2013 |  | 성기웅
작가/연출가 | 〈20세기 건담기(建談記)〉, 〈신모험왕〉
〈가모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과학하는 마음 3부작 - 발칸동물원편〉 |
| 2012 |  | 김은성
작가 | 〈썬사인인의 전사들〉, 〈함악〉, 〈빨〉
〈목란언니〉, 〈연변엄마〉, 〈시동라사〉 |
| 2011 |  | 윤한솔
연출가 | 〈인터넷 이즈 씨리얼스 비즈니스〉
〈1984〉, 〈두뇌 수술〉, 〈나는 기쁘다〉
〈의붓기억 - 억압된 것의 귀환〉
〈빈커가 없으면 나는 너무 외로워〉 |
| 2010 |  | 김낙형
작가/연출가 | 〈맥베드〉, 〈지상의 모든 밤들〉
〈별이 쏟아지다〉, 〈나의 교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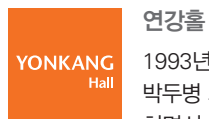
미술부문

- | | | | | | | |
|------|---|-----|---|-----|---|-----|
| 2018 |  | 이윤이 | | | | |
| 2017 |  | 권하운 | | | | |
| 2016 |  | 김희천 |  | 박광수 |  | 이호인 |
| 2015 |  | 강정석 |  | 오민 |  | 유목연 |
| 2014 |  | 강동주 |  | 안정주 |  | 이윤성 |
| 2013 |  | 김민애 |  | 김영나 |  | 차재민 |
| 2012 |  | 김상돈 |  | 김지은 |  | 장지아 |
| 2011 |  | 박주연 |  | 이소정 |  | 이재이 |
| 2010 |  | 구동희 |  | 김시연 |  | 박미나 |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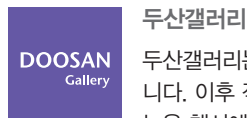
연강홀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연강(蓮崗) 박두병 회장의 생가터에 지은 연강홀. 2007년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620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pace111

두산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Space111.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두산갤러리

두산갤러리는 비영리 갤러리로서 2007년 서울에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작가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대미술의 중심지인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미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큐레이터 워크샵과 미술강좌 등을 통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갤러리 뉴욕은 한국 최초로 뉴욕 주정부와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고 2009년 뉴욕 첼시에 설립된 비영리 갤러리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은 국제적 수준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미술 작가들에게 뉴욕 첼시에 있는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레지던시 입주 작가에게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 및 미술애호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48 West 28th Street, Suite #231, New York, NY 10001

입주작가 2019 권하운 임영주 장서영 황수연
2018 기슬기 김희천 박광수 배윤환 이호인
2017 권용주 오민 윤향로 장파 최수양
2016 강동주 박재영 안정주 유현경 이운성 이은실
2015 김민애 김영나 백정기 이혜인 정지현 차재민
2014 김상돈 김지은 장보윤 장지아 전소정 이완
2013 박주연 문성식 유승호 이소정 이재이 함진
2012 구동희 김시연 박미나 박세진 이지현 정희승
2011 김기라 김인배 민성식 박윤영 이동욱 이주요
2010 권오상 김인숙 백승우 성낙희 홍경택
2009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아트센터 2019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창작자 지원

DAC 아티스트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아트랩

쇼케이스, 독회,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을 지원합니다.

두산레지던시 뉴욕

두산레지던시 뉴욕은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6개월 동안 뉴욕 첼시 지역에 위치한 독립된 작업실과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은 한국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연강예술상

인재양성에 힘쓴 두산 초대회장 연강 박두병 선생의 뜻을 이어 2010년에 제정했으며, 미술과 공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더 데빌 뮤지컬 18.11.7-3.17
작/연출 이지나 작곡 우디 박, 이지혜

홍표 뮤지컬 3.28-5.26

극작 강남 작곡 김효은 연출 오루피나

스웨그에이지 : 외쳐, 조선! 뮤지컬 6.18-8.25

극작 박찬민 작곡 이정연 연출 우진하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9.20-10.27

원작 앨런 베넷 연출 김태형

팬레터 뮤지컬 11.7-20.2.2

극작 한재은 연출 김태형



Doosan Art LAB 1

하이라이 연극 1.10-1.12

작/연출 김명환

페지의 역사 연극 1.17-1.19

작/구성/연출 박현지

기록을 찾아서 : 연기를 해야지

교태만 떨어져 되겠느냐 연극 1.24-1.26

공동창작 김정 박희은 최희진

아빠 안영호 죽이기 연극 2.14-2.16

작 도은 연출 고유빈

여기에는 메테이아가 없습니다 다원 2.21-2.23

공동창작 프로젝트 XXY 연출 김지은

원의 안과 밖 : 탄생비화 연극 2.28-3.2

작/연출 원지영

두산인문극장 2019 : 아파트

철가방추적작전 연극 4.9-5.4

원작 김윤영 각색 박찬규 연출 신명민

녹천에는 동이 많다 연극 5.14-6.8

원작 이창동 각색 윤성호 연출 신유형

포스트 아파트 Post APT 다원 6.18-7.6

공동구성 정영두 정아식 카피 백종관

DAC Artist 신작

몽중안-나는 준향이 아니라, 워크숍 9.19-9.21

소리꾼 이승희 교수 이향하

이갈리아의 딸들 연극 10.1-10.19

원작 게르드 브란트베르그 각색/연출 김수정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신작

인정투쟁 : 예술가 편 연극 10.29-11.16

작/연출 이연주

노인과 바다 판소리 11.26-12.1

작창/출연 이자람 연출 박지혜

공동기획

굴레방다리의 소극 연극 3.9-3.30

원작 연다 윌쉬 각색/연출 임도완

레라미 프로젝트 연극 7.13-7.28

작 모이세스 카우프만 각색/연출 신명민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연극 8.3-8.18

작 강훈구 각색/연출 황재현

후회하는 자들 연극 12.7-12.25

작 마르쿠스 린덴 연출 류주연



두산갤러리 서울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

유어서치, 내 손 안의 리서치 서비스 1.16-2.20

황수연 개인전 3.6-4.17

두산인문극장 2019 : 아파트

Our Paradise, 아마도 멋진 곳이었지요 5.1-6.22

두산아트랩 2019 : Part I 7.3-8.3

두산아트랩 2019 : Part II 8.21-9.28

이윤이 개인전 10.9-11.9

장서영 개인전 11.20-12.21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특별전 : Flags 1.31-2.23

임영주 개인전 3.7-4.13

장서영 개인전 4.25-6.8

두산갤러리 뉴욕 오픈 10주년 특별전 6.27-8.15

황수연 개인전 9.12-10.19

권하윤 개인전 11.7-12.19



교육 프로그램

두산청소년아트스쿨 1.28-3.9 / 10.15-12.5

두산인문극장 2019 : 아파트 4.8-6.24

두산아트스쿨 : 미술 2.7-3.14, 9.24-10.22

두산아트스쿨 : 공연 7.26-8.16

두산아트센터 투어 매월 마지막 목요일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서울 02.708.5050 doosangallery.com

두산갤러리 뉴욕 +1.212.242.6343/6484

공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

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기에
두산은 무한한 바람과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험준한 산, 대농장...

사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 기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닷물 97%, 빙하 2%, 마실 수 있는 물 1%...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매우 부족하기에
두산은 비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서 첨단 건설 장비, 해수담수화 기술까지

두산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 산업기술로

자구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